

“늘봄학교 인건비 왜 자체예산으로 하나?”

“오등봉공원 경관심의 자료 조작 의혹”

제주환경운동연합 지난 17일 기자회견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4년도 추경안 심사 초1 늘봄학교 2학기 전면시행 따른 예산문제 지적 “늘봄 전담 인력 100여명 인건비 교육청 재정 압박”

오는 2학기부터 초1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전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전담 인력 100여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전액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향후 교육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인력 중복 운영에 따른 지적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로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3월부터 도내 55개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된 늘봄 프로그램은 2학기부터 도내 112개교에서 전면 운영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담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53명(제주시 34명·서귀포시 19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0억4300만원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 인력 100여명의 예산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향후 교육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늘봄 인력

채용형태, 채용 인원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과도한 인력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의숙 의원(제주시 중부 선거구)은 “현재 초1 맞춤형 프로그램(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늘봄 시범운영 학교) 55개교 중 25개교”라며 “그 말은 이 25개 교실에서 운영되는 시간이 돌봄 시간이기 때문에 돌봄 전담자가 배치되며,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가 있고, 기간제 교사까지 배치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3개의 직종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인력 운영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자체 예산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경규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중앙 정부에서 미리 기간제 근로자를 모든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해버린 상황이었다. 중앙 정부에서 배치를 약속했는데,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배치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을 하겠느냐”라며 “최소 인원으로 그래도 53명은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인력을 늘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하고 더 소통하고 학교 규모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환경단체가 경관심의 당시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를 향해 “조작이 의심되는 사진에 대한 원본 자료 및 정확한 조망점 좌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관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른 경관시뮬레이션 조망점 9곳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망점은 제주아트센터 앞, 송현토건 주변부, 연복로 사거리, 제주연구원 주변부, 제주 장례문화센터 앞, 오봉로 오거리 등이다.

단체는 “제주아트센터 앞의 경우 심의자료 사진에서는 한라산을 구름으로 완전히 가려 특례사업으로 인해 한라산 전경의 상당 부분이 조망되지 않게 되는 점을 의도적으로 감춰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처럼 한라산이 완전히 가려지

려면 사진촬영이 어려울 정도의 극한 날씨가 돼야 하지만 주변 시설물 등이 명확히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사진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한라산을 가렸을 가능성마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복로 사거리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한라산 자락의 주요 경관인 어승생악을 의도적으로 구름으로 가려놓았다”면서 “송현토건 주변부와 관련해서는 조망점의 위치와는 전혀 다른 사진을 첨부해 심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번 개발사업은 제주시가 전체적 경관이 훼손된다고 판단한 지난 2016년 사업계획과 차이가 없거나 더 심해졌다”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전체적 경관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시선 사로잡는 5월 장미 18일 제주시 조천읍 한 카페 정원에 분홍빛의 장미가 만개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국기자

섬지코지 산책로 화재

야초지 1320㎡ 이상 피해

제주 유명 관광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섬지코지 산책로에서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했다.

>> 사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4분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후 2시 56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14건의 동일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됐던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320㎡가



남은 야초지와 야자수 보행 매트, 조명 설비 등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작업 ‘속도’

개정 부결했던 교수평의회와 학교 측 재심의 등 논의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대학교 역시 향후 일정을 고려해 내주 중

학칙 개정을 위한 재심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교수평의회와 대학 측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주대는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해 내주 중에는 재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일환 총장은 지난 13일 교수평의회에서 부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골자의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학칙 개정안은 40명으로 된 제주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 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며 지난 9일 교수평의회는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루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도 같은날 의대 정원 증원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김대현기자 dhkang@ihalla.com

부부싸움하다 흥기 휘두른 60대 남편 긴급체포 경찰청

부부싸움을 하다 흥기를 휘둘러 아내를 심하게 다치게 한 남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제

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를 흥기로 찢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문제로 B씨가 A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현기자

수 축 상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적십자 회비 모금 기여 공로)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창용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위원회 초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임원 일동

취 축 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명희 회장 조근배 외 회원 일동
(한림공업고등학교)

수 축 상

대통령표창

김대중
(주)제주오션 잠수팀장
(부: 김기수·모: 채영자)

수산자원보전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촌일동